

송화 가루 날리는 윤사월

"선생님~~~이번에 시험문제 어렵게 내셨어요?"

5월 중간고사를 앞둔 물리시간에 우리들이 선생님께 드린 질문이었다.

인천의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인일여고에 합격한 학생이라는 나름의 프라이드를 갖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검정 스웨터에 잠자리 타이를 매는 교복을 입고 교정을 오가는 나의 하루하루는 참 행복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향해 가는 실전 속에서 친구들도 결국은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인천의 여러 중학교에서 온 새로 사귀 친구들과 점심시간마다 분수가 솟는 연못 앞에 앉아 방송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 도서관 위의 작은 동산인 '통일동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맡으며 담벼락 바로 너머에 있는 명문 남고인 제물포고등학교 학생들을 그려보는 일, 일몰의 시간에 인천 앞바다로 떨어지는 붉은 해를 바라보는 일~ 모두가 멋진 일이었다.

특히 제물포고등학교 남학생들과 지도교사를 모시고 서클활동까지 하게 된 일은 다섯 자매들 속에서만 자란 사춘기 여학생인 내게 환하게 뜬 무지개 같았다.

"이번 시험은 아주 어렵게 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점수를 잘 받기 힘들 거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였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빵점짜리가 수두룩할 거라는 물리선생님의 말씀은 그렇잖아도 100% 문과 체질이고 물리, 화학이 어렵기만 한 내게 정말 두려운 얘기였다.

같은 반이던 나와 수경이, 경숙이는 학교가 파한 뒤에 공부를 한답시고 거의 매일 남아서 그 당시 유명한 분식집이던 '명물당'의 우동과 두껍고 커다란 고구마튀김을 저녁으로 사먹고 교실로 들어와 책을 펼쳤다.

책을 펼친다고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었다.

같이 서클활동을 시작한 남학생들의 이름을 골고루 불러가며 이런저런 평가도 하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는 진실 게임도 하며 때로는 수위아저씨가 교문을 잠글 때까지 교실의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척 커튼을 내리고 있다가 교문을 넘어 집에 가기도 했다.

시험을 앞둔 주일날, 책가방에 공부할 거리를 잔뜩 넣고 학교로 갔다.

다른 과목들은 웬만큼 공부를 했는데 물리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빵점이 수두룩할 거라는 선생님 말씀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수경이와 경숙이도 그런 것 같았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친구들과 통일동산에 올라갔다.

소나무꽃에서 떨어진 노란 송화 가루들이 여기저기 흩날리며 쌓이고 있었다.

송화 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 사
문설주에 귀 대고 엳듣고 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시만 읊으면서 살고 싶어.

물리는 정말 싫어!

물리가 실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다고~~'

박목월의 시 '윤사월'을 외우며 우리들은 크게 소리쳤다.

다음날 물리시험이 있었고, 문제는 어려웠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공부를 해도 안 해도 빵점이 수두룩할 정도는 아니었다.

과장된 선생님의 말씀에 지레 겁을 먹고 무의식의 강한 저항에 의지해서 공부를 게을리 한 나는 빵점은 면했지만 점수는 바닥을 쳤고, 그 덕분에 1학년에 들어와 처음 보는 시험의 전체 점수도 바닥을 치고 말았다.

송화 가루 날리던 통일동산에서 시만 외운 게 아니고 노트를 접어 노란 송화 가루를 그 안에 담으며 담 너머 학교의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을 그리워하기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던 먼 옛날 윤사월의 추억이다.